

『인도연구』 기 게재논문 총목록

- * 이 논문들의 원문 PDF파일을 한국인도학회 사이트 (www.indology.co.kr)의 <학회지/논문투고>-<논문검색>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1권 (1993년 9월)

Ahn, Jung-Hun, Jung-Ho Lee, Alok K. Roy “A Comparative Study of the Korean and Hindi Proverbs”, 1–76.

Lee, Kwang-Su “Cultural Contact between India and Korea in Ancient Time: A Study in the Legend of Queen Ho of Karak”, 77–98.

Park, Jong-Soo “India-Korea Economic Cooperation: Korean Perspective”, 99–116.

Roy, Alok Kumar “A Study of India’s Diplomatic Efforts at the Outbreak of Korean War”, 117–134.

노영자 “한-인 민담의 비교연구: 바꿀수록 커지는 유형”, 135–154.

이은구 “Jaishankar Prasad의 서사시 *Kamayan*에서의 Shaivism”, 155–180.

제2권 (1997년 11월)

이광수 “새로운 인도 연구의 모색: 지역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1–16.

임근동 “국내인도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17–29.

김형준 “인도 철학의 특성과 그 접근 방법”, 31–47.

심재관 “오리엔탈리즘과 유럽의 브라만교(Brahmanism) 형성”, 49–69.

- 김호성 “한국의 인도불교 연구: 방법론의 모색을 중심으로”, 71–89.
- 강경선 “인도헌법의 형성: 연구과제와 방법”, 91–112.
- 이재숙 “산스끄리뜨 문헌에 나타난 언어철학적 요소: *Śabda* 개념을 중심으로”, 113–134.
- 김경학 “민족성의 정치학: 헤게모니로서의 카스트위계에서 대항 헤게모니로서의 민족성의 정치학”, 135–153.
- 이은구 “동남아시아의 ‘인도화’(Indianization)에 대한 고찰”, 155–174.
- 이광수, 김경학, 백좌흠 “인도의 근대 사회 변화와 카스트 성격의 전환: 카스트의 ‘민족블럭’으로의 전환”, 175–222.

제3권 (1998년 11월)

- Singh, Mahendra Pal “Law in India since Independence”, 1–15.
- Ray, Aswini K. “Politics in India since Independence”, 17–32.
- 권기철 “독립 후 인도의 경제발전 전략: 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33–65.
- 김경학 “독립 50년과 인도사회”, 67–97.
- 류경희 “독립 50년과 인도종교”, 99–129.
- 김우조 “독립 50년과 인도문학”, 131–155.
- Krishnan, R. R. “Indo-Korean Relations since 1947”, 157–167.
- 이광수, 김경학, 백좌흠 “인도의 근대 사회 변화와 카스트 성격의 전환: 카스트의 계급으로의 전환”, 169–238.
- 박정석 “남인도 텔란가나(Telangana) 지역의 와탄다리 체계 (Watandari system): 또 하나의 자즈마니(Jajmani) 체계?”, 239–260.
- 최종찬 “다언어사회 속의 인도영어”, 261–302.

제4권 (1999년 11월)

- 임근동 “베다문학에 나타난 다르마: 따빠쓰와 화해로운 삶이
란 다르마의 원형을 중심으로”, 1–17
- 이재숙 “『마누법전』의 다르마사상”, 19–46
- 박금표 “아쇼카왕의 다르마(Dharma)에 관한 연구: 공자의 덕
치 사상과의 비교를 통하여”, 47–79
- 박정석 “남인도의 불가촉천민에 관하여”, 81–114
- 이광수, 김경학, 백좌흠 “인도의 근대 사회 변화와 카스트 성
격의 전환: 카스트의 위계에서 생활 양식 차이로의 전
환”, 115–181
- 김우조 “1960년대 힌디 시와 정치현실”, 183–215
- 이종철 “인도 佛典의 번역과 해석 문제”, 217–243
- 백좌흠 “인도 농업자본주의 발전에 관한 학제간 연구모델”,
245–289
- 고경희 “인도의 일당우위정당체계(1952–1967)”, 291–326
- 변순미 “샹카라의 인간 개념”, 327–349

제5권 (2000년 11월)

- 이주형 “사르나트 출토 4사자 주두의 네 가지 동물과 그 역
사적 전개”, 1–34
- Chauhan, Karan S. “Rasa in Indian Literature”, 35–60
- 김찬완 “인도 경제 자유화에서 정치적 요소”, 61–84
- 박정석 “Voluntary Association and Political Activities: A
Case Study in a Telangana Village, South India”, 85–125
- 백좌흠 “인도 헌법의 소유권 규정의 변천: 토지개혁과 관련된
헌법수정을 중심으로”, 127–152
- 정채성 “인도의 “기타 후진 계급(Other Backward Classes)”
의 사회적 성격”, 153–198
- 박장식, 김홍구, 이광수, 김경학, 박정석, 우제혁 “인도 동북부
와 동남아 산지세계의 소수종족: 종족성, 국민국가, 분리
주의운동”, 199–264

김우조, 김주희, 류경희 “인도문화와 이중적 여성상 II”,
265–320

제6권 1호 (2001년 6월)

- 김영규 “다까니 힌디: 우르두어의 형성과 발달”, 3–33
서우석 “라가의 개념”, 35–50
강신보(대원) “초기 불교의 팔정도와 중용의 덕과의 비교”,
51–69
조환기 “唯識에서 Vijñapti의 개념”, 71–93
라윤도 “인도의 지역주의와 주 재편성”, 95–121

제6권 2호 (2001년 11월)

- 김찬완 “인도의 정치문화”, 3–27
강경선 “인도연방제의 성립과 그 전개과정”, 29–59
노영자 “빤쯔딴뜨라 ‘친구의 획득’편 연구”, 61–85
조준호 “석가족의 인도–유럽인설에 대한 반박”, 87–123
백좌흠 “독립 인도의 국가 성격에 대한 연구”, 125–153
김경학 “인도 구술사 연구의 동향과 그 전망: 인도 서브얼턴
연구를 중심으로”, 155–186
이옥순 “19세기 인도 여성교육: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전장
(戰場)”, 187–217

제7권 1호 (2002년 6월)

- 조길태 “인도 전통사회를 이어온 통일성과 관용성”, 1–25
이은주 “샹까라 철학에서의 우주의 내재적 통일원리 문제에
대한 고찰”, 27–55
박정석 “인도 무슬림의 의례와 힌두: 모하람과 다르가 승배”,
57–87
권기철 “인도의 노동력 이동과 여성문제”, 89–117

김영규 “중기 우르두어의 발달: A.D. 1700–1857년, 북인도를 중심으로”, 119–158

전순환 “고대–중세인도어의 곡용어미와 인도 유럽어의 기반: 테마모음어간 명사를 중심으로”, 159–196

제7권 2호 (2002년 11월)

백좌흠 “신경제정책하의 인도 농업문제”, 1–21

이옥순 “또 하나의 시선?: 19세기 식민지 인도에 거주한 영국 여성의 인도 여성 보기”, 22–46

이재숙 “인도 고전극의 공연장 구조 연구: 『나띠야 샤스뜨라』를 중심으로”, 47–72

김영규 “근대 힌디어의 발달: A.D. 1700–1948년 독립 때까지”, 73–103

최종찬 “특별기고: 인도어 표기안”, 105–120

제8권 1호 (2003년 6월)

류경희 “힌두 근본주의 운동의 정체성 정책과 여성”, 1–28

김우조 “TV드라마 ‘라마야나’와 인도정치 그리고 여성: 힌두 근본주의의 부상(浮上)을 중심으로”, 29–59

정채성 “하리잔(Harajan)과 달리뜨(Dalit): 불가촉천민의 집단 의식 형성”, 61–83

전순환 “리그베다 신 이름들에 대한 어원적 고찰: 역사비교언어학적 분석”, 85–122

박금표 “시크교와 민족주의 I: 시크교의 탄생기부터 타트 칼사 운동시기까지를 중심으로”, 123–149

김영규 “근대 우르두어의 발달”, 151–180

이은구 “쁘램짠드 단편소설의 경향과 기법 변화에 대한 고찰”, 181–213

임근동 “개구리와 물새의 노래: 베다(Veda)와 시경(詩經)의 대비연구를 위한 한 시론(試論)”, 215–236

제8권 2호 (2003년 11월)

- 김경학 “호주 휘지계 인도 무슬림 사회의 구성과 그 전망”,
1-30
- 장용규 “남아공 인도인 이주사: 1860-1948”, 31-52
- 백좌흠, 이광수, 김경학, 김찬완, 이재숙 “힌두-무슬림 갈등
의 구조적 성격과 동태 분석: 아요디야 사태를 중심으
로”, 53-94
- 라윤도 “마하트마 간디의 언론활동 고찰: 인도 독립운동과정
에서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95-117
- 권기철 “인도의 지역경제구조와 그 전망”, 119-152
- 권오민 “숲(vana)과 마을(grāma): 인도철학의 정체성을 해명
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 153-177
- 이거룡 “힌두교와 그리스도교의 修行觀 비교”, 179-198

제9권 1호 (2004년 6월)

- 김주희, 김우조, 류경희 “힌두 근본주의와 인도의 여성: 힌두
근본주의의 부상이 진보와 우익 여성계에 미친 영향”,
1-46
- 박정석 “마을 제의(祭儀)에 나타난 힌두신의 위계와 카스트
불평등”, 47-82
- 김경학 “인도 정착 한국전쟁 중립국 선택 포로의 이야기”,
83-115
- 김찬완 “아프간 전쟁 이후 남아시아 정세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인도를 중심으로”, 117-140
- 김미숙 “자이나의 식생활 원리와 그 철학적 배경”, 141-158
- 황순일 “‘불의 소멸’에 관한 인도적 관점과 불교적 비판”,
159-179
- 김영규 “우르두 문자의 아랍문자 용례(用例)”, 181-203
- 전순환 “고대인도어의 원형적 성격에 대해: 모음체계와 모음
교체현상의 관계를 중심으로”, 205-228

제9권 2호 (2004년 11월)

- 백좌흠, 이광수, 김경학, 김찬완, 이재숙 “힌두-무슬림 갈등의 구조적 성격과 동태 분석: 구자라뜨 사태를 중심으로”, 1-52
- 김우조 “자이시의 『빠드마와뜨』에 나타난 인도(힌두)문화의 수용”, 53-79
- 김주희 “싱가포르 거주 타밀계 체띠아르(Chettiar) 공동체: 혼인과 여성을 중심으로”, 81-111
- Kim, Chan-Wahn “Economic Aspects of India's Foreign Relat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Indo-US Relations during 1990-1995”, 113-139
- Kong, Duk-Ahm & G Balatchandirane “A Study on Major Big Business Houses in India: Performance and Prospects since the Reforms”, 141-182
- 임근동 “『수많은 파키스탄(Kitane Pākistāna)』에 나타난 종파주의에 대한 작가의식”, 183-200
- 이은주 “인도의 베다사상과 대중신앙 형성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201-227
- 김영규 “근대 뱅갈어의 발달”, 229-246

제10권 1호 (2005년 5월)

- 류경희 “19세기에 등장한 힌두 종교-사회 개혁운동의 현황과 성패요인”, 1-40
- 김찬완 “인도의 산업구조 변화와 종교갈등: 구자라뜨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41-61
- 이병진 “사회적 자본 형성과 대중운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헤랄라(Kerala)주의 인민참여운동(People's Campaign) 사례를 중심으로”, 63-86
- 이명무 “전자상거래의 성공요인: 한국-인도 비교분석”, 87-109
- 이상수 “간디의 법철학사상 연구: 간디에게서 종교적인 것의

의미를 중심으로”, 111–136
변상형 “미적 경험으로서의 Śāntarasa”, 137–157

제10권 2호 (2005년 11월)

- 김경학 “피지계 인도인의 초국가적 성격”, 1–42
박정석 “말레이시아 인도인의 암만(여신) 숭배: 사람들의 디
아스포라 혹은 신들의 디아스포라?”, 43–81
인태정 “피지 관광산업에 있어서 인도인 디아스포라의 지위”,
83–111
정효진 “피지 인도인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 113–142
라윤도 “인도의 미디어혁명”, 143–177
김호성 “『바가바드기타』를 읽는 간디의 多元的 讀書法”,
179–213
임근동 “동시대 한국시에 나타난 인도의 이미지”, 215–232

제11권 1호 (2006년 5월)

- 권기철 “1991년은 인도 경제 변화의 분수령인가?: 1980년대
와 1990년대의 인도의 자유화 및 개혁정책 비교 분석”,
1–35
김윤호, 이명무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한
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37–62
이광수 “고대 인도사에는 여성이 있는가?: 식민주의와 민족주
의의 여성사 기술에 대한 비판적 검토”, 63–87
김진영 “인도신화에 나타난 여신으로서의 시따(Sītā) 연구”,
89–116
심준보 “샤머니즘의 의식변형기법들과 비교한 고전요가 삼매
의 의미”, 117–148
Cho, Myeong-Lim “A Study of Patronage of the Buddhist
Monastery in Deccan under the Sātavāhanas”,
149–180

제11권 2호 (2006년 11월)

- 강향숙 “후기밀교에 나타난 만뜨라의 기능과 역할: Hevajra-tantra를 중심으로”, 1–31
김우조 “수르다스의 『수르사가르』에 나타난 박띠사상”, 33–62
김형곤 “간디의 원칙중심의 리더십”, 63–98
김호성 “『바가바드기타』에 보이는 지혜와 행위의 관련성: 간디의 sthitaprajña 개념을 중심으로”, 99–143
임근동 “『요가수트라』의 요가”, 145–172
백좌홍 “2004년 총선 이후 인도정치에서 좌익정당들의 부상”, 173–205
인태정 “영국 인도인 디아스포라의 형성배경과 특징”, 207–237
Mishra, Sandip Kumar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Role of US in the Post-Cold War Era”, 239–281

제12권 1호 (2007년 5월)

- 고홍근 “까우렐리-야(Kautilīya)와 한비: 인도와 중국의 정치 사상에 대한 비교연구”, 1–59
박정석 “케랄라의 귀환이주자: 이주과정과 소비행위를 중심으로”, 61–99
오세정 “인도, 중국, 미국의 로맨틱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 9.11 이후 인도와 중국의 외교적 갈등과 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101–135
정채성 “힌두 지참금 관습의 구조적 성격: 깐야단 이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137–164
남수영 “중관학파의 공사상에서 공의 의미에 대한 남북한 연구 현황과 전망”, 165–196
이용현 “불교 땐뜨리즘의 한 정점: 아바야까라굽따와 마음의 의례”, 197–225
이은주 “샹까라의 수행관과 식(識, vijñāna)”, 227–266

- Gargesh, Ravinder “Stylistics and Stylistic Analysis of a Modern Hindi Poem”, 267–313
Koh, Tae-Jin “Ergativity and Verbal Agreement in Hindi”, 315–347
Mudliar, Pratibha (in Hindi) “Contemporary Hindi Poetry and Women’s Sensibility”, 349–384

제12권 2호 (2007년 11월)

- 권기철, 김규 “인도의 금융시장 개혁: 성과와 과제”, 1–48
류경희 “인도의 독립적 여신신앙과 여성: 신화와 실제”, 49–84
박양섭 “인도기업의 글로벌 성장 전략: 타타 그룹 사례 연구”, 85–111
송정란 “스토리텔링으로서의 인도신화”, 113–142
노영자 “까비르 비쟈크에 나타난 언어관 연구: 「쵸라 마트 (사키)」 본을 중심으로”, 143–169
원혜영 “붓다의 다비의식에 담긴 공동체의 변화”, 171–194
이거룡 “인도 수행전통에서 물질적 소유의 의미”, 195–223
이용현 “『니쉬빠나요가발리』의 쌈쓰꼬리뜨 텍스트에 관한 고찰”, 225–251
임근동 “‘아할야(Ahalya)’의 이야기: 인도신화의 한 읽기”, 253–278
Lokhandwala, Munira “The Cultural Noetics of English in the Indian Context”, 279–305
Thorat, Ashok “English in India: Refraction Phenomenon”, 307–320

제13권 1호 (2008년 5월)

- 박정석, 조정규, 정영주 “인도의 식민도시 고아(Goa)의 도시 경관과 문화적 정체성”, 1–35
백좌흠 “인도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37–66

- 양승윤 “인도네시아의 인도문화 영향에 대한 역사적 고찰”, 67–93
- 이명무, 김윤호 “국내기업의 친디아(Chindia) IT산업 진출 방안”, 95–138
- 이지은 “독립 이후 인도 달리뜨(Dalit) 운동의 한 단면: 달리뜨 팬터(Dalit Panther)의 예를 중심으로 본 1970년대 마하라슈트라”, 139–192
- 정채성 “인도 환경운동의 사회경제적 성격: ‘칩꼬(Chipko)’와 ‘나르마다(Narmada)’ 운동을 중심으로”, 193–231
- 남동신 “보드가야 마하보리사(大覺寺) 출토 한비(漢碑)”, 233–270
- 이은주 “초기 상캬사상과 인도불교수행법(위빠사나)”, 271–318
- Mudliar, Pratibha “Language of Advertisement in Hindi Mass Media”, 319–344

제13권 2호 (2008년 11월)

- 이은구 “쁘램짠드 단편소설에 나타난 무슬림 인물에 관한 연구”, 1–32
- 임근동 “『쌍크야끼리까』 의 우주론: 가우다빠다(Gaudapāda)의 바스야(Bhāsyā)를 통한 『쌍크야끼리까』 의 한 읽기”, 33–85

제14권 1호 (2009년 5월)

- 이명무, 김윤호 “정부기관의 웹사이트 접근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1–22
- 정채성 “지참금 관습을 통해서 본 힌두 여성의 경제적 지위: 재산권을 중심으로”, 23–53
- 노영자 “아쇼끄 짜끄르다르(Ashok Chakradhar)의 시 세계”, 55–88

제14권 2호 (2009년 11월)

라윤도 “간디 저널리즘 연구”, 1–37

이운용 “한–인도 CEPA 효과분석 및 활용방안: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39–89

Mishra, Sitakanta & Yeon-Jung Ji “The Nuclear Factor in India’s Foreign Policy”, 91–141

김우조 “옴쁘라까슈 빌미끼의 자서전, 『주탄(*Joothan*)』에 나타난 달리뜨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143–174

임근동 “『요가愫뜨라(*Yogasūtra*)』의 자제자(Iśvara)에 대한 고찰: 브야싸(Vyāsa)와 와짜쓰빠띠미슈라(Vācaspatimiśra), 그리고 위ঘনাবিষু(Vijñānabhiṣikṣu)의 주석을 중심으로”, 175–204

조준호 “초기불교에 있어 국가권력(왕권)과 교권: 세간과 출세간에서의 정교분리를 중심으로”, 205–237

제15권 1호 (2010년 5월)

구하원 “식민치하 ‘인도’ 건축에 대한 해석: 락슈미 빌라스 궁전을 중심으로”, 1–31

조준현, 최성일 “고용 없는 성장’: 경제개혁 이후 인도 고용 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33–62

고태진 “힌디어의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vP를 활용한 통사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63–99

박영길 “하타요가(Haṭhayoga) 전통에서의 84좌법(āsana)설: 원형과 문헌적 근거에 대하여”, 101–156

이용현 “헤바즈라 탄트라의 상징체계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157–183

제15권 2호 (2010년 11월)

강경선 “인도헌법 개정의 특징에 관하여”, 1–33

김용식, 전채택 “인도 CSR 활동의 변화와 특성 연구: 다국적

-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35–71
백좌홍 “인도 아동노동법: 관련 법규의 결함과 집행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73–107
이지은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을 대상으로 한 인도 정원할 당제: 수혜집단 제한과 불균등 발전을 통해서 본 문제점과 그 개선안”, 109–137
임근동 “베다(Veda)와 우파니샤드(Upaniṣad)의 상호관련성 연구: 뿌루샤찬가(Puruṣasūkta)의 해석에 적용되는 『이샤우파니샤드(Īśopaniṣad)』의 근본개념을 중심으로”, 139–164
Gargesh, Ravinder “Stylistic Analysis of Agyeya’s Poem ‘sā:s ka: putala:’”, 165–206

제16권 1호 (2011년 5월)

- 박금표 “근대 불교의 사회주의 비판: 암베드카르의 인도 사회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1–31
서대교, 신종협 “한국 보험회사의 인도 보험시장 진출 전략”, 33–72
이광수 “사띠와 자살특공대의 힌두교적 논리와 그 사회적 의미”, 73–98
정채성 “인도 달리뜨 운동의 국제화와 ‘인권’ 문제: 국내 운동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한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99–140
이은주 “사념처 수행과 호흡에 대한 사띠 수행의 관계”, 141–167
Gargesh, Ravinder “Semiolinguistics and the Analysis of Agyeya’s Poem ‘Ki:ra’”, 169–223
Koh, Tae-Jin “Relativization of Noun Phrase in Hindi: Comparative Study of Participle and Relative Pronoun in Terms of 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rchy”, 225–258

Chauhan, Karan Singh (in Hindi) “Role of Devanagari and Persian Script in Hindi-Urdu Controversy: A Historical Perspective”, 259–279

제16권 2호 (2011년 11월)

김찬완 “21세기 인도의 대외경제정책: 새로운 트렌드를 중심으로”, 1–37

신진영 “다국적기업에서 문화적 중재자의 유형과 역할: 인도 수도권 진출 한국 기업들의 사례 연구”, 39–67

유성욱 “박띠(Bhakti) 사상의 기원에 관한 연구”, 69–90

제17권 1호 (2012년 5월)

정채성 “카스트 불평등이 도시전문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 인도의 소프트웨어 전문직을 중심으로”, 1–50

이용현 “『금강의 화환(Vajrāvalī)』에서 관정(灌頂)에 대한 아바야카라굽타의 해석”, 51–84

제17권 2호 (2012년 11월)

구하원, 이춘호 “새로운 전통의 구축: 빌리우드 영화 『모합 바땡』과 『세 얼간이』의 시각문화를 중심으로”, 1–43

신종협, 서대교, 조충제 “인도 주별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45–81

고태진 “힌디어에 나타나는 코드 스위칭에 관한 연구”, 83–125

유성욱 “불교 8대 순례지 관념의 성립에 관한 고찰”, 127–160

제18권 1호 (2013년 5월)

이춘호, 구하원 “불리우드 영화의 결혼식에 나타난 인도 전통 문화 분석: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영화를 중심으로”, 1–38

정채성 “힌두성(Hindutva)의 개념 규정과 문화민족주의 간의

상관관계 연구: 1980년대 이후 인도 사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39–81

제18권 2호 (2013년 11월)

구하원 “윌리엄 존스와 『마누법전(*Mānava Dharmasāstra*)』의 번역”, 1–34

박정석 “네팔의 민주화와 종족성의 정치 II: 브라만과 체트리 를 중심으로”, 35–76

김선미 “요가수련에서 5요소(Pañca-Mahābhūta)의 의미에 대한 고찰”, 77–106

제19권 1호 (2014년 5월)

김영진 “델리의 따지아 행진에 나타나는 순니파와 시아파의 차이 및 역사적 변화에 대한 연구”, 1–38

김우조 “타고르의 조선에 대한 인식과 조선에서의 타고르 수용”, 39–67

정채성 “인도 신중간계급의 사회경제적 성격 및 ‘기타후진카 스트’ 집단과의 관계 연구”, 69–108

강대공(법진) “동북아시아의 대승불교경전에서 인도불교 나 가(nāga)전설의 재구성”, 109–137

정미숙 “아유르베다(Ayurveda)의 체질별 식이요법을 통한 몸과 마음의 변형”, 139–173

제19권 2호 (2014년 11월)

성한경, 이순철 “한–인도 CEPA 활용률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40

박정석 “국민–국가와 종족 민족주의: 네팔 림부 종족을 중심으로”, 41–79

이지은 “힌두 전통에 대한 남인도 비(非)브라민적 인식론: 빠리야르의 『라마야나』 읽기”, 81–116

강향숙 “독성각의 나반존자와 빈두로존자의 관계 재고”,
117–148

제20권 1호 (2015년 5월)

권기철 “인도의 양파 위기를 전후한 양파 가격의 시계열적 특성 변화 분석”, 1–35

김은경 “근대문명의 시스템 안에 갇힌 인간과 그 안의 ‘괴물’에 대한 고찰: R. 타고르의 “레드 올랜더스”를 중심으로”, 37–74

최경아 “인도불교에서 개아론자의 출현과 의미”, 75–102

Ji, Yeon-Jung “Strategic Partnership under the Modi Government: Modus Operandi in India’s Foreign Policy”, 103–150

제20권 2호 (2015년 11월)

최규성, 박정열 “정수기 제품의 인도 시장 진출 결정요인 및 진입전략에 관한 연구: LG전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1–57

고태진 “힌디어의 능격에 나타난 ‘의도성’에 대한 연구: 그린 버그의 함의적 보편성을 중심으로”, 59–90

김재민 “식이(食餌) 체계에 따른 요가 수행자의 심신 상관 성”, 91–121

박기열 “무분별지의 대상확정(arthaniścaya) 작용”, 123–160

박수영 “『니룩따』와 『아슈따디야이』의 상대 연대: 뿌루샤 (puruṣa) 및 다뚜(dhātu)와 관련하여”, 161–197

박효엽 “빤짜꼬샤 이론의 베단따 기원에 관하여”, 199–226

제21권 1호 (2016년 5월)

구하원 “근대성의 건축: 식민 치하 인도 칼리지와 대학교 건

축의 고찰”, 1–32

신민하 “인도상공회의소연합의 설립과 초기 활동에 관한 역사적 고찰(1927–1947)”, 33–75

강위달, 이거룡 “케겔(Kegel)의 골반기저근 강화운동과 하타요가(Haṭhayoga)의 무드라(Mudrā)와 반다(Bandha) 수련 비교: 성기능과 요실금 개선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77–108

고태진 “힌디어 경동사의 재해석과 분류”, 109–136

박금표 “『마누법전』과 『여사서』를 통한 여성코드 읽기”, 137–178

박수영 “『아슈따디아이』 따디따(taddhita) 부분의 구조: 지역·종족 접미사(tadrāja)를 중심으로”, 179–210

심준보 “비베카난다의 요가관 연구: 『라자요가』에 나타난 하타요가관과 현대 요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211–243

제21권 2호 (2016년 11월)

이지훈 “인도 헌법 제21조의 법률해석 변화와 적용확대”, 1–41

김영진 “빤짜 꼬샤(Pañca Kośa)와 인드라망(Indra’s Net)을 통한 메를로-퐁티(Merleau-Ponty)의 몸철학 이해”, 43–74

제22권 1호 (2017년 5월)

오화석 “마르와리(Marwaris)의 성공요인 연구: 기존 연구 고찰 및 마르와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1–56

박효업 “우빠니샤드의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읽기의 가능성: 나찌께따스 이야기의 사례”, 57–84

이거룡 “가락국(駕洛國)과 고대 남인도(南印度)의 문화적 접촉에 관한 고찰: 물고기승배를 중심으로”, 85–121

제22권 2호 (2017년 11월)

박정석 “달리트(Dalit) 정체성과 이름의 이중성: 네팔 산록
달리트를 중심으로”, 1–36

서대교 “인도 생명보험시장의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37–70

손연우, 고태진 “힌디어 일간 신문 기사표제 유형 분석: 텍스
트성 및 구성적 특징을 중심으로”, 71–108

신민하 “인도 근대경제단체 형성의 기원에 관한 연구: 벵갈상
업회의소의 설립과 초창기 활동을 중심으로
(1834–1853)”, 109–156

권서용 “화이트헤드의 파악(prehension)과 다르마카르티의
인식(pramāṇa)에 관한 비교연구”, 157–185

김성옥 “『밀린다빵하』 윤희의 해명과 12연기”, 187–216